

파견기간	2022.02.21. ~ 07.09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18-19200
파견국가	스위스		소 속	전기정보공학 부
파견대학	EPFL		성 명	박가영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큰 열망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아닌 곳에서 잠시나마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EPFL(Ecole de Polytechnique Lausanne)은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공과대학으로,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라고도 부릅니다. 로잔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호수인 레만 호(Lac Lemman)에 접해 있는 호반 도시로, EPFL 외에도 다양한 대학교가 위치하여 연령대가 전체적으로 젊으며, 평화롭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근처에 위치한 대도시로는 기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제네바가 있으며 레만 호를 경계로 프랑스의 작은 마을 에비앙(Evian)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파견대학을 선정할 때에는 영어로 제공되는 석사 수업 중 전력전자 분야의 수업이 있는지, 대학교의 전반적인 랭킹은 어떤지, 여행 다니기에 교통은 편리한지, 지역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PFL에 지원하였습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스위스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 신청 및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비자 발급에는 최소 8주가 걸리기 때문에 2022-1학기 파견을 위해 2021년 11월 중순에 방문하여 1월 말에 비자를 수령하였습니다. 이른 출국을 위해서는 비자 인터뷰를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신청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파견 지역에 6개월동안 거주할 집(residence)을 신청하여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중앙역 및 학교까지의 거리와 월세를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신청하였고 신청 시에 원하는 기숙사명을 명시하여 원하는 곳으로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의 형태는 Single Room, Flatshare, Studio 세 가지가 있는데 저렴한 Single Room과 Flatshare 중 그나마 개인 공간이 확보되는 Single Room으로 신청하였습니다.(현지 생활을 해 본 결과 친구를 사귀기에는 Flatshare가 더 좋습니다!) 또한 EPFL에 계신 전력전자 분야의 교수님께 미리 메일로 인턴 가능 여부를 물어 출국 전에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턴 활동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고 싶어 찾아본 결과 EPFL에는 교환학생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Project for exchange students)라는 과목이 있어 이 과목을 수강 신청시 함께 신청하였고 교수님께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로잔은 스위스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간단히 공부를 하고 가면

좋을 듯하여 2달 동안 기초 프랑스어 수업을 신청하여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유가 있다면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서 비 불어권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학강좌를 신청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관공서 직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잘 구사하므로 불어를 잘 못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출국 직전에는 각종 코로나 관련 서류(예방접종확인서, 테스트 음성 결과지 등)를 구비하고 유심, 생필품, 옷, 등을 챙기고 은행 업무 혹은 병원 진료 등 외국에서 급하게 받기 힘든 일들을 미리 처리했습니다. 비행기는 가능하면 파견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왕복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 저의 경우 로잔 도착 전에 10일간 아이슬란드 여행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인천-레이카비크 및 레이카비크-제네바 항공권을 각각 따로 끊었습니다.

IV. 학업 및 현지 생활 안내

처음에 총 21ECTS(연구 프로젝트 7ECTS, 수업 14ECTS)를 신청하였습니다. 모든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Lecture와 Exercise session이 구분됩니다. 처음에 신청한 수업들 중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과목은 수강취소가 가능하여 2ECTS 과목 한 개는 취소하였고, 나머지 시험들에 응시하였습니다. 연구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냈고, 석사 및 박사 학생들과 어울리며 처음 로잔에 적응해 뿌리를 내리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부활절 연휴(4월 중순-말 경까지 대략 10일간의 휴일)의 첫 장기 여행을 기점으로 학기 중 및 학기가 끝난 이후에 스위스의 다른 지역, 네덜란드, 모로코,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등으로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제네바 공항이 가까워 제네바 공항을 기점으로 유럽 각지로 취항하는 저가항공사 이지젯(EasyJet)을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다른 유럽 도시에 교환 와 있는 한국인 친구나 함께 로잔에서 교환생활을 하던 다른 한국인 친구와 다니기도, 혼자 다니기도 했습니다. 로잔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짧게 여행을 다녔더라면 그것 역시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을 듯 싶습니다.

로잔에는 로잔대학교(UNIL)와 로잔공과대학교(EPFL)에서 연합하여 교환학생간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인 ESN이 있어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교환학생인 친구들, 또는 ESN의 일원인 로잔에 거주하는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친구들 중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을 올 예정인 친구들도 있어 특히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같은 기숙사에서 주방을 공유하는 친구들이나 옆 주방 친구들, 또는 친구의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호숫가에서 기숙사가 가깝다 보니 주로 함께 수영을 하거나 호숫가 산책, 또는 호숫가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식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친구들과 놀 때에는 주로 서로의 집에 초대하여 점심 또는 저녁을 함께 먹거나, 바에 가서 맥주를 마시거나, 볼링을 치거나 호수에서 카약 등의 액티비티를 함께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는 도시이다 보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정말

많아서 미리 알아보고 꼼꼼히 챙긴다면 더 알찬 로잔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로잔의 사람들은 학교 외의 사람들까지도 대부분 친절합니다. 덕분에 현지 생활을 하며 저에게도 조급함, 불편함을 참아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다르게 생긴 저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인상을 띠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로잔에서의 6개월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로잔 생활과 여행을 하며 너무나도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맺는 인연의 지속 불가능한 특성에 아주 조금의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오히려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간에 집중하여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이들과 어울리며 그동안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만 세상을 봤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이켜 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임하는 유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불편했지만, 적응하고 나니 이 또한 하나의 삶의 방식이며 느려도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세요, 잘 지냈어요? 하는 가볍지만 따뜻한 말들과 조금의 미소면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가족, 친구들이 그리웠던 적도 있지만 로잔은 제게 하나의 새로운 home이었고,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생활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큰 생각의 변화와 넓은 세상을 느낄 기회를 주신 공대 국제협력실과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